광주 군공항 군용기·시설 옮겨… 250만평 반도체 산단 조성

메가프로젝트 2차 민관 회의

李, 2028년 중순까지 임시 배치 주문
인근 63만평 우선 착공 방안 검토
'선 양여' 특례 법제화 논의 본격화
2030년 6월 첫 팹 양산 목표 제시
대체기지·미7공군 협의 남은 과제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800조원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 예정지인 광주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해 2028년 중순까지 기지 기능을 다른 군 공항으로 임시 배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면서, 부지 확보를 위해 정부가 본격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메가프로젝트 제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국방부는 2028년 중순까지 광주 (군) 기지 기능을 다른 군 공항으로 임시 배치해서 광주 군 공항 부지가 반도체 산업 단지로 조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의 지시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예정지인 광주 군 공항 부지 826만㎡(250만평)에 주둔 중인 공군 부대의 군용기·시설·기능을 인접 기지로 임시 배치, 이른바 소산(疏散)하는 방안을 공식적으로 검토하자는 의미다. 앞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광주 군 공항 훈련 소요를 다른 기지로 소산하는 계획을 공군과 협의해 착공을 최대한 앞당길 예정"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도 안규백 국방부 장관, 손석락 공군참모총장, 진영승 합동참모의장 등 군 관계자들도 참석해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광주군공항 부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비행 안전구역'으로 묶여 있어 개발 행위 자체가 불가능하다. 국토교통부가 국가산단 조성 후보지로 지정하고 전력·용수 인프라 구축 등도 속도감 있게 진행 중이지만, 부지가 비워져야 기반 조성 공사부터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시작될 수 있다.

광주군공항의 무안 이전도 추진 중이지만 새 군 공항 완공까지는 빨라야 8~9년이 걸린다. 무안군은 이전과 관련해 광주 민간공항 무안국제공항 선 이전, 1조 원 규모 재정 지원, 국가산단 조성 등 획기적 인센티브와 구체적 로드맵 제시 등 3대 선결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

결국 2030년 6월 호남 팹(제조시설) 내 첫 반도체 양산이라는 목표를 위해서는 종전부지를 비운 뒤 국가산단 개발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게 우선 양여하는 방안이 불가피하다.

이에 정부와 전남광주특별시는 국회 계류 중인 군 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에 '국가 전략산업 육성 또는 국가산단 지정의 목표가 있다면 군공항 부지부터 양여받아 개발할 수 있다'는 '선 양여' 특례를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논의하 중이다.

다만 종전부지 내 공군 전력 임시 배치 기지를 어디로 할지, 어떻게 옮길지는 해결해야 할 과제다.

현재 공군 제1전투비행단은 훈련 교육대대를 두고 FA-50 경공격기 등을 운용하고 있다. 조종사 양성과 유사시 후방 배후 기지 등을 대신 할 국내 기지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군용기 운용, 탄약고·정비, 훈련 등 기능별 순차 이전과 훈련대대 해외 배치 등 여러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또 광주기지는 한미 공군 공동운영기지 중 하나여서 주한 미7공군도 주둔 중이다. 기존 협의에서 벗어나 주한 미 공군의 대체 시설 마련을 전제로 광주군공항 시설 공여·점유 문제 전반을 풀어야 한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에는 일본 구마모토 못지않은 속도로 신속하게 집행되었으면 좋겠다"며 "임시 배치 이전이라도 군 공항 인근의 부지에 산단이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군 공항 인근 부지 조기 착공의 경우, 탄약고 이전 부지·비행 안전구역 등 63만평이 유력하다. 설치된 군 시설물이 없어 당장 땅이 비어 있고 종전부지와 인접, 최대 45만평 규모인 반도체 팹 1기 조성에는 무리가 없다는 평가다.

이 밖에도 향후 클러스터 확장이나 정주 여건을 갖춘 신도시로서 개발 가능성이 점쳐지는 배후 부지도 있다. 영산강변인 서구 서창·덕흥동과 광산구 평동산단 주변부 등지다. 상황에 따라서는 우선 개발 여지도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김성환 "재생에너지 우선 확대… 부족한 전력은 원전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반도체 산단 신규 수요 총 21GW 규모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조기 달성
원전 추가 여부 10월 전기본서 결정
송전망·재활용수 확충해 인프라 보강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7일 전남 광주 나주시 한국전력거래소를 방문해 여름철 폭염 대응 전력수급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뉴시스

인공지능(AI) 혁명과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급증하는 전력과 용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국가 에너지·수자원 구상을 밝혔다.

김 장관은 10일 JTBC 유튜브 방송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AI와 반도체 산업의 핵심 기반은 전기와 물"이라며 "재생에너지를 조기에 대폭 늘리는 것을 기본 축으로 하되, 부족한 전력은 원자력발전을 활용해 메꾸는 '고차방정식'을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15기가와트(GW), 광주 반도체 산단 등에 6GW 등 총 21GW의 신규 전력이 필요한 상태라며, 이는 원전(기당 1.4GW 기준) 약 15기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공급 목표를 기존 계획보다 22GW 확대한 100GW 수준으로 조기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재생에너지 주 전력원은 태양광과 해상풍력이다. 특히 가정용 태양광 전력을 쓰고 남을 경우 현금으로 정산해 주는 제도를 새로 도입해 민간 보급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재생에너지의 간헐성과 전력 폭증 속도를 감안해 원전의 추가적인 보완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오는 10월 마련될 예정인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 과정에서 공론화를 거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재생에너지를 최우선으로 끌어올리되, 산업 경쟁력을 지키기 위한 전력 확보에 부족함이 있다면 원전을 일부 추가할지 여부를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들어 10월까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규 부지 선정 시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기존 원전 부지 내 남은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수도권 전력 수송을 위한 송전탑 갈등 해결책도 제시했다. 김 장관은 "주거지 인근은 비용이 들더라도 지중화를 추진하고, 기존 송전철탑을 복층 구조로 개조해 철탑 추가 설치를 40%가량 줄이는 대안을 검토 중"이라며 "한전의 채권 발행과 정부·지자체 재정을 조합해 국민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대규모 용수가 투입되는 반도체 공정 특성에 맞춰 수자원 확보 대책도 연계 추진된다. 초순수 공정 등 필수 영역에는 댐 용수를 공급하되, 식힘물 등 공업용수는 하수 재활용수를 적극 활용하는 방식이다. 광주 지역의 경우 하수 재활용을 통해 하루 30만 톤 규모의 용수를 확보하는 계획이 추진된다. 또한, 댐과 강을 연결하는 관로망을 강화하고 속초·강릉 등에 도입된 지하 저류댐을 확대해 국지적 가뭄에도 공장이 차질 없이 가동되도록 할 방침이다.

최근 일회용품 규제를 둘러싼 현장 혼선에 대해서는 실용적인 정책 전환을 약속했다. 김 장관은 "일회용 종이컵이나 빨대를 무조건 법으로 금지해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다. 권고다"고 했다. 이어 "삼성전자 수원 사업장, 야구장, 유명 장례식장 등 대량 배출처부터 다회용기 사용 문화로 전환하도록 유도해 국민 생활의 불편은 줄이고 자원 순환 효율은 높이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10대 '스크린 타임' AI로 이동… 콘텐츠 플랫폼 경쟁 재편

제타 10대 월평균 사용 45시간44분
인스타보다 16시간 더 오래 머물러
특정 주간엔 유튜브 사용시간도 추월

10·20대의 콘텐츠 소비 지형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을 보던 시간을 AI 캐릭터와 대화하는 데 쓰는 이용자가 늘면서다. 생성형 AI 경쟁이 검색과 업무 생산성을 넘어 이용자의 '여가시간'을 차지하는 경쟁으로 확산하고 있다.

10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AI 대화 앱 '제타'의 10대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89만5526명으로 전월보다 6.2% 증가했다. 이용자 증가보다 두드러지는 것은 사용시간이다.

지난달 10대 이용자 한 명이 제타에서 보낸 시간은 월평균 45시간44분으로 전월 대비 23.2% 늘었다. 같은 기간 인스타그램의 10대 1인당 평균 사용시간은 29시간15분이었다. AI 캐릭터와 대화하는 시간이 인스타그램보다 약 16시간30분 길었던 셈이다.

특정 주간에는 유튜브도 넘어섰다. 지난달 20일부터 26일까지 제타의 10대 1인당 평균 사용시간은 13시간28분으로 유튜브의 13시간12분보다 16분 길었다. 하루 평균으로 환산하면 약 1시간55분이다.

한 달 전체가 아닌 특정 주간의 수치라는 점은 감안해야 하지만 국내 모바일 콘텐츠 시장에서 이용시간 최상위권인 유튜브보다 AI 캐릭터 앱에 오래 머문 10대 이용자가 나타났다는 점은 눈에 띈다.

특히 제타의 10대 MAU가 전월보다 6.2% 증가하는 동안 1인당 사용시간은 23.2% 늘었다. 신규 이용자 유입뿐 아니라 기존 이용자들이 AI와 보내는 시간 자체가 길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검색 대신 대화… 네이버도 AI 캐릭터 확대

스캐터랩이 운영하는 제타는 이용자가 AI 캐릭터와 실시간으로 대화하며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AI 콘텐츠 플랫폼이다. 이용자가 원하는 캐릭터를 만들거나 기존 캐릭터를 선택해 대화를 이어가며 입력 내용에 따라 캐릭터의 반응과 이후 이야기가 달라진다.

챗GPT 등 범용 생성형 AI가 정보 검색이나 문서 작성, 번역 등 생산성 영역을 중심으로 성장했다면 AI 캐릭터 서비스는 '대화 자체'가 콘텐츠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정해진 영상을 시청하는 것과 달리 이용자가 직접 참여하고 AI가 이에 반응하면서 콘텐츠가 실시간으로 만들어지는 구조다.

이 같은 흐름은 네이버웹툰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네이버웹툰은 웹툰 속 캐릭터와 대화할 수 있는 AI 기반 서비스 '캐릭터챗'을 운영하고 있다. 작품 속 캐릭터의 성격과 말투, 작품 정보를 바탕으로 이용자가 실제 캐릭터와 대화하는 듯한 경험을 제공한다.

젊은 이용자들의 반응도 두드러진다. 네이버웹툰에 따르면 캐릭터챗 이용자의 78%가 10·20대다. 2024년 6월 국내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올해 2월 일본 라인망가에도 캐릭터챗을 출시하며 서비스 지역을 넓혔다.

네이버웹툰은 AI와 웹툰 지식재산권(IP)을 결합한 서비스도 확대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원작자가 승인한 웹툰 IP를 기반으로 이용자가 AI 캐릭터와 대화하며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AI 스토리챗 서비스 '바이어스'를 선보였다.

◆AI도 '체류시간' 경쟁… 유튜브·SNS 영역까지

AI 캐릭터의 높은 체류시간은 다른 조사에서도 확인된다. 와이즈앱·리테일이 올해 초 한국인 스마트폰 이용자를 표본조사한 결과 AI 챗봇 앱 가운데 총사용시간 1위는 제타였다. 한 달간 총사용시간은 1억1341만시간으로 챗GPT의 5047만시간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이용 행태가 달라지면서 AI 기업들의 경쟁 영역도 넓어지고 있다. 그동안 생성형 AI 시장에서는 모델 성능과 답변 정확도, 추론 능력이 핵심 경쟁력이었다. AI 캐릭터에서는 여기에 이용자가 얼마나 자주 방문하고 오래 머무느냐는 '체류시간'이 새로운 경쟁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최빛나 기자 vitna@